





연관 홈페이지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연관 공식홈페이지](#) |
 [선생님 지원](#) |
 [어디가 활용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렉스 A동 23층 Tel.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 ◆ 대학수학능력시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 지원
- ◆ 대학별평가,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 및 응시 지원 권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에 교육부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약 42만 명이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 올해에도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방향

- (기본원칙)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 향후 방역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수험생과 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 (수험생 면역체계 구축)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수험생별 응시원칙 및 응시환경)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여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된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등의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가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인방역지침을 9월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며,

○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을 통해 수능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응시자 중 격리·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상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능 방역 관련 주요조치사항 및 추진 계획(로드맵)(안)

구분	시험장소	주요사항	협조기관
백신접종 지원	일반	무증상 → 고교 내 일반 시험실	교육청
		유증상 → 고교 내 별도 시험실	
	격리자	무증상 → 별도시험장 내 일반시험실	중수본 지자체 교육청
		유증상 → 별도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확진자	병원 / 생활치료센터	중수본 지자체 교육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div> <div>↑</div> <div>↑</div> </div>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격리자·확진자 파악 및 시험장배정)

7~8월	9월		10월	11월	
백신 접종 추진	원서접수 (~9.3.)	시험장 확보(~10월초)		수험생 거리·확진 상황 관리 (10.25.~)	시행 (11.18.)
		세부방역 지침 안내 (9월초)	수능시행 원활화대책 마련 (10월 중, 국무회의)		

대학별평가 권고사항

- (기본방향)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 (응시자 유형별 권고안) 자가격리자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 생활치료센터/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범위와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 (응시환경 구축) 대학은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응시자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 (대학별 평가 운영 지원) 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별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대학별평가가 종료되는 2022년 2월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지원자 중 격리·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제공하여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동일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한다.
-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 붙임 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주요내용
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붙임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시험일정

- (시험일) 2023. 11. 16.(목)
- (성적통지일) 2023. 12. 8.(금)

2. 시험영역 및 출제형식 등

- (시험영역) ①국어, ②수학, ③영어, ④한국사, ⑤탐구(사회/과학/직업), ⑥제2외국어/한문
- (응시과목 선택)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 및 이외 시험 영역/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응시
 -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응시
- (출제형식) 객관식 5지 선다형
 -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 단답형 출제

3. 성적제공

-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제공(절대평가)하고,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공(상대평가)

4.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자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 정지
 -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붙임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 공통과목 : 독서, 문학 · 선택과목(택 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공통 75%, 선택 25% 내외 출제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30	5지선다형, 단답형	2,3,4	100점	100분	· 공통과목 : 수학 I, 수학 II · 선택과목(택 1)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공통 75%, 선택 25% 내외 · 단답형 30% 포함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 I, 영어 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사회 ·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 1 +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1년 5월 1일자 발표한 <2022학년도 수시요강>에 근거하여 제작됨
2. 추후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반드시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함.

주요 내용: 수도권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정

지역	마감일	시각	대학명
서울	09.12(일)	18:00	서울대
	09.13(월)	17:00	고려대 / 성균관대 / 연세대
		18:00	경희대 / 서강대 / 서울시립대 / 한양대
	09.14(화)	16:00	한국체대
		17:00	가톨릭대 / 건국대(서울) / 광운대 / 국민대 / 동국대(서울) / 서경대
		18:00	덕성여대 / 동덕여대 / 명지대 / 삼육대 / 상명대 / 서울교대 / 서울기독대 / 서울과기대 / 서울여대 / 서울한영대 / 성공회대 / 성신여대 / 세종대 / 숙명여대 / 숭실대 / 이화여대 / 장로회신학대 / 중앙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한국성서대 / 한성대 / 홍익대
		19:00	케이씨대 / 한국외대
		20:00	감리교신학대
경기	09.13(월)	17:00	한양대(ERICA)
	09.14(화)	10:00	수원가톨릭대
		17:00	루터대 / 단국대(죽전) / 경기대 / 아신대 / 아주대
		18:00	가천대 / 성결대 / 서울신학대 / 대진대 / 강남대 / 수원대 / 안양대 / 용인대 / 차의과학대 / 평택대 / 한경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항공대 / 한세대 / 한신대 / 협성대
		19:00	신경대
		24:00	신한대
인천	09.13(월)	18:00	경인교대
	09.14(화)	18:00	인천가톨릭대 / 인천대 / 인하대
		17:00	춘천교대
		18:00	가톨릭관동대 / 강릉원주대 / 연세대(미래) / 한림대

강원	09.14(화)	20:00	강원대(춘천) / 강원대(삼척) / 상지대
		22:00	한라대
		24:00	경동대
대전	09.14(화)	17:00	대전신학대 / 한국침례신학대
		18:00	을지대 / 충남대 / 한밭대
		19:00	우송대 / 한남대
		20:00	대전대 / 목원대
		21:00	배재대
세종	09.13(월)	17:00	대전가톨릭대
	09.14(화)	18:00	고려대(세종)
충남	09.13(월)	18:00	공주교대
	09.14(화)	17:00	나사렛대 / 단국대(천안)
		18:00	공주대 / 남서울대 / 백석대 / 상명대(천안) / 선문대 / 순천향대 / 한서대 / 호서대
		19:00	건양대 / 청운대 / 한국기술교대
		20:00	금강대
		24:00	중부대
충북	09.14(화)	17:00	청주교대
		18:00	건국대(글로벌) / 중원대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19:00	충북대
		20:00	극동대
		21:00	가톨릭꽃동네대 / 세명대 / 청주대
		22:00	서원대
		24:00	유원대
대구	09.14(화)	18:00	경북대 / 계명대 / 대구교대 / 디지스트
경북	09.14(화)	17:00	대신대(창구,우편접수) / 위덕대
	09.14(화)	18:00	경운대 / 경일대 / 경주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대 / 대구예술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인터넷) / 동국대(경주) / 안동대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포항공대 / 한동대

	09.14(화)	20:00	동양대
	09.14(화)	20:00	동양대
부산	09.14(화)	17:00	부산교대
	09.14(화)	18:00	경성대 / 고신대 / 동명대 / 동아대 / 동의대 / 부경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대 / 부산외대 / 신라대 / 한국해양대
울산	09.14(화)	18:00	울산과학기술원 / 울산대
경남	09.14(화)	17:00	진주교대
	09.14(화)	18:00	가야대 / 경남대 / 영산대 / 인제대 / 창신대 / 창원대
	09.14(화)	19:00	경상국립대
	09.14(화)	21:00	부산장신대
광주	09.14(화)	17:00	광주교대 / 호남신학대
		18:00	GIST / 광신대 / 광주대 / 남부대 / 전남대 / 조선대 / 호남대
		19:00	송원대
		20:00	광주여대
전남	09.14(화)	17:00	광주가톨릭대/한려대
		18:00	동신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대 / 목포해양대 / 세한대 / 순천대 / 초당대 / 한국에너지공과대
전북	09.14(화)	17:00	전주교대 / 한일장신대
		18:00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우석대 / 원광대 / 전북대 / 전주대 / 호원대
		20:00	군산대
제주	09.14(화)	18:00	제주대 / 제주국제대

주요 내용:수도권 서류 입력 마감 일정

지역	마감일	시각	대학명
	09.13(월)	18:00	서울대
	09.14(화)	17:00	성균관대 / 연세대/ 한양대
		18:00	서울시립대
		10:00	서울여대

서울	09.15(수)	17:00	가톨릭대 / 건국대 / 경희대 / 광운대 / 국민대 / 동국대 / 삼육대 / 세종대 / 이화여대
		18:00	서울과기대 / 성신여대 / 숭실대 / 한성대 / 홍익대
	09.17(금)	18:00	덕성여대 / 장로회신대
	09.22(수)	24:00	총신대
	09.14(금)	18:00	동덕여대
경기	09.15(수)	14:00	가천대
		15:00	경기대
		17:00	강남대
		18:00	차의과학대 / 평택대
	09.17(금)	17:00	을지대 / 한국산업기술대
	09.24(금)	17:00	아주대
		18:00	한국항공대
인천	09.15(수)	17:00	인천대
	09.16(목)	18:00	인하대



[수험생 필수 시청!!!]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유의사항 1부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전 체크사항)

어디가TV

2022년 #입시꿀팁
#22학번 대학가자

구독

올해 나는
대학 간다!

1부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옥

수시모집 원서 접수 유의사항 알고가자!

- ★ 수시 모집 일정
- ★ 수시 원서 접수 전 체크사항

다음에서 보기: YouTube



[수험생 필수 시청!!!]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유의사항 2부 (수시지원횟수, 복수지원, 지원횟수 제한 미포함대학 ...)

어디가TV

2022년 #입시꿀팁
#22학번 대학가자

구독

올해 나는
대학 간다!

2부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옥

수시모집 원서 접수 유의사항 알고가자!

- ★ 지원 횟수
- ★ 전형에 따른 복수 지원
- ★ 제한에 포함 되지 않는 대학

다음에서 보기: YouTube





"항공운항서비스학"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 이유진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승무원의 꿈을 갖고 난 후로 승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승무원 지원 시 전공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공운항서비스학과'를 지원해야 할지 비전공을 지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교육과정에 정해져 있는 과목들만 공부했다면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 항공운항서비스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방법

항공운항서비스학과를 지원할 당시 준비한 전형은 'CKU 꿈 & 끼'라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면접 비중이 다른 학과보다 높기 때문에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변을 써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연습하였지만 영상을 찍고 돌려보니 너무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답변이 잊히도록 이를 원 후 키워드를 잡아서 다시 연습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희 학과장님이 집필하신 비행스케치-이륙에서 착륙까지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비행 경력이 정말 많으신 저희 진성형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되면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이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저희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교수님의 오랜 비행 경력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에 입학하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항공 객실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접하다 보면 모르는 객실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객실 용어에 대해 먼저 접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과목을 배울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기본은 깔끔한 이미지입니다. 입학 후 어피어런스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고 자신에게 잘 맞는 화장법도 배우게 됩니다. 또 저희 학과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항공 객실 안전학을 배우는데 이 안전학을 통해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키우게 되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하게 됩니다. 또 기내에서 승객들의 마음을 읽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심리학을 배우며 승객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서비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항공기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에 기내는 매우 한정적인 공간이기에, 저희는 롤 플레이를 통하여 승객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인 저는 항공사 면접을 위한 한국어 인터뷰-영어 인터뷰는 물론, 기내식음료론을 통해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과 음료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학과 실습을 많이 하면서 전문적인 승무원이 되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습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공운항서비스학과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그럼 예쁘게 걷는 것을 배우냐?'고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전 지식과 실습, 외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겸비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희 학과가 서비스를 배우는 학과이다 보니 호텔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와 비슷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호텔, 관광, 항공 경영 같은 경우엔 저희와 같이 서비스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문제 해결, 안전 교육 등 다른 학과에서 쉽게 배우지 않는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에 관련된 학과다 보니 항공사 코드, 공항 코드 등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생 때 항공운항서비스학과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과이기에 입학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후회되고 '조금 더 자신감을 느낄 것'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몇 년 후 자신의 멋진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장점을 더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힘든 마음을 공감받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과학"


조리과학

조리과학 분야는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최적의 조리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조리의 원리와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조리기술로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조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조리원리와 과학, 실험조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등이 있다.

극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이효준 

학과,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교 생활 중 다양한 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주최하는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전공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조리라는 전공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바로 '흥미'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힘듦'이라는 감정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업무에 비해 자신의 업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면 어떨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그나마 내가 흥미를 느낀 활동이라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흥미를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준비방법

"본인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학교의 입학 면접에서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 학과의 교수님들은 '지원자의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마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의 이 열정을 바탕으로 같은 시간에 더 좋은 효율을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기계발 서적이나, 전공 관련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을 추천하자면, 에드워드 권의 '일곱 개의 별을 요리하다'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래된 책이지만 조리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저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었으며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주로 활동한 것들과 전공을 연관 지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조리사의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역량을 나열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역량과 어울릴 만한 본인의 경험을 이어주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가치관을 더해주어 작성한다면, 본인의 가능성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조리라는 능력을 이용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전공 관련 커리어를 쌓고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을 해 보고 싶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활동은 자기소개서를 대신할, 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글로 적어 내려가는 자기소개서보다 더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타인에게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무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및 대학생활

‘조리학과’라는 타이틀만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실습 위주의 학과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리학과에 진학하면 실습 위주의 수업뿐 아니라 경영학, 영양학 등과 같은 학문의 수업도 받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실습 위주의 수업이 70%이며 학문적인 수업은 30%입니다.

조리라는 전공 특성상 최종 목표가 개인 레스토랑 개업인 학생들이 많으며, 실제로 창업의 길에 뛰어드는 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지루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보고, 실제 예비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이색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서 즐겁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은 지루한 과목이지만, 조리학과 학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이론에 초점을 맞춘 수업과 달리 몇 번의 실습 수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즐겁게 영양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제가 재학 중인 극동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는 다른 학교의 조리학과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바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조리라는 전공 특성상 실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극동대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들이 실습실을 교내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실습환경입니다. 극동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는 매년 적은 인원이 입학합니다. 타 학교와는 달리 신입생 수가 현저히 적은데, 이는 1인 1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대학의 실습 환경을 보면 1인 1 실습이 아닌 3인 1 실습 혹은 5인 1 실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과 극동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와의 실습환경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료의 신선도입니다. 극동대학교는 ‘상성 도래미’라는 업체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타 대학과 달리 많은 학과 비용을 실습 재료비에 투자하여 학생들이 좋은 식자재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조리학과 졸업생은 크게 2가지 분야로 취업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 등 관광산업에 조리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거나, 두 번째로 단체급식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저 호텔 등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호텔신라, 호텔롯데, 신세계조선호텔, 웨라톤, 하얏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여러 직무 중 하나인 조리부에 지원하여 취업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조리 전공자를 우대 조건에 기재하고 있어, 취업할 때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단체급식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C프레시웨이, 아워홈 등이 있으며, 단체급식 기업의 주 업무는 사내 식당 운영입니다. 이러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전공 관련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외활동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한다면, 취업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학생들은 취업 후 특수대학원(야간대학원)을 통해서 석사학위에 도전합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석사학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시간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졸업 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리학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진학하는 석사 전공은 관광학, 외식 경영학, 조리학, 경영학 등이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많은 예비 대학생들이 여러 학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진학하려는 전공을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진학 후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 약간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를 판단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이름도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학하려 하는 학과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통해 전공 학과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모든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고등학생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 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미래에 여러분 인생에 큰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2022학년도 음악계열 입시변화와 대비

황 선 교사(서울여자고등학교)

2022학년도 대학입시 중 음대입시에 반영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수시전형에서 각 전공실기성적, 학생부(교과, 출결 등)가 필요하며, 정시전형에서 전공실기, 학생부, 수능성적이 필요하다. 더불어 면접이 필요한 학교도 있다.

음대입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반영하여 입시전형이 이루어지므로 전공실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전공실기 준비를 위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음악 무대에서의 연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인 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항상음악회, 연주회 개최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 음악 무대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마다 음악동아리, 합창제, 음악제 등이 개최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무대 경험을 통한 연주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수시와 정시전형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수시모집의 변화, 반영 방법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전형의 변동사항으로 한양대(에리카) 실용음악(보컬), 단국대(죽전) 관현악, 국악, 작곡은 수시로만 선발, 한양대 국악학과와 경기대 실용음악(보컬)은 단계별전형에서 일괄합산전형으로, 홍익대 공연예술우수자전형(실용음악)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실기80+교과10+출결10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수시전형은 일반계열과 마찬가지로 6회 지원이 가능하다.

실기시험 일정과 준비된 실기 시험곡들을 살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실기시험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빠른 템포의 자유곡을 시험곡으로 제시하지만, 준비하는 시험곡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곡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실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는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를 반영한다.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성적과 몇몇 학교의 출결자료 반영이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은 음악교육학과(공주대, 서원대, 조선대, 전남대) 선발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음대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 일반선택과목과 함께 대학별로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곳도 있다. 성취도를 어떻게 점수화하여 반영하는지는 각 학교별 제시된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영하는 교과목을 살펴서 성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시전형의 종류에는 일괄합산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괄합산전형 유형

전형 종류	전형 내용
일괄합산전형	실기100%, 실기+면접, 실기+학생부, 실기+학생부+면접

단계별전형 유형

전형 종류	전형 내용	
	1단계	2단계
단계별전형	실기	실기
	교과	1단계성적+실기
	실기	학생부+실기
	실기	학생부+실기+1단계성적
	교과+출결	1단계성적+면접
	실기	2차실기+서류평가
	실기	2차실기+서류평가+면접 및 구술고사
	서류+실기	1단계 서류평가+2단계실기+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학생부	실기
	실기+학생부	1단계 성적+실기

다음은 2022학년도 정시전형의 변화와 반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정시는 실기성적과 함께 수능반영, 학생부 반영 등이 있으며, 면접반영으로 일부 음악교육과(서원대, 공주대, 조선대), 장신대, 홍익대 등 신학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은 없다. 정시모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사항으로 연세대 나 Ⅰ가, 공주대, 숙명여대, 한양대 국악과 가 Ⅱ나로 군별 이동이 있다. 서울대 성악과(수능55+실기45), 단국대 성악과는 정시만으로 선발하며, 홍익대 뮤지컬, 실용음악전공이 정시에 신설(수능40+실기60)되었다. 한국교원대는 일괄합산전형으로 변경, 면접 폐지, 선택실기 제1과제 변경(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국악 중 택 1), 한양대 국악과 일괄합산전형으로 변경되었다. 건국대 음악교육과는 학생부반영이 폐지된 수능60+실기40을 반영한다.

둘째, 학생부 반영 대학으로 국민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평택대, 호원대, KC대, 용인대 등이 있으며, 국+영, 국+영+수+사+과 등을 반영한다.

셋째, 능반영은 국어, 영어 영역 반영 대학으로 한양대, 세종대, 연세대, 숙명여대, 가톨릭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장신대, 홍익대, 추계예대 등이 있으며, 혹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중 선택 반영하고 있다.

넷째, 정시전형의 종류로 일괄합산전형과 단계별전형이 있으며,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괄합산전형 유형

전형 종류	전형 내용
일괄합산전형	실기100%, 수능100%, 실기+수능, 실기+수능+면접, 실기+학생부+수능, 실기+학생부

단계별전형 유형

전형 종류	전형 내용	
	1단계	2단계
단계별전형	실기	실기+학생부+수능
	실기	실기+수능
	실기+수능	1단계 성적 + 실기
	실기+수능	실기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21학년도 음대입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시와 정시전형의 실기, 학생부, 수능, 면접 등 반영 방법을 점검하고 실기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교과, 수능반영영역들을 살펴 교과성적과 수능 준비에도 대비하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원서 접수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어서 실수하지 않고 입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보내기 (부제: 전반적인 고등학생 경험 작성)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그리고 심도 있고 자신의 관심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꾸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학교생활 및 수능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정하기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생각해보시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진로가 바뀌고, 그 바뀐 진로를 잘 연결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저의 진로와 관심사를 생각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중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맞추어서 저의 관심사를 확장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내신 관리를 잘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면서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노하우

본 내용은 저의 사례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은 자신만의 진로와 이야기를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상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는 거의 전부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창의융합적 인재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문과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등의 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융합과학부문, 문학작품 갈래 바꾸기, 수학 ucc 만들기, 독도탐구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작은 음악회, 패임랩, TED, NIE 대회, 철학 에세이 쓰기 대회, 정책 제안 글쓰기, 현대 시 기반 공익광고 제작 등 다수의 대회에 참여,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을 중요시하는 부문에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2명,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대회에 나갈으로써 협동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봉사 및 동아리

봉사는 대략 200~30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봉사 점수 활동에 참여해서 학교에서의 성실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봉사활동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책 읽어주기,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기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활동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독서 자소서에도 쓰기도 하는 등 의미 있고 저의 국어 교사라는 진로에도 적합한 활동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학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스태프 역할을 하면서 수학에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동아리는 두 가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는 수요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정규 동아리였고, 또 하나는 토요일 동아리였습니다. 두 동아리 모두 기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정규 동아리는 토론 동아리였습니다. 시사와 관련된 여러 논점들을 다루면서 사회 문제에도 관심 있는 저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 강조하는 토론과 토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에서도 토론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서 이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동아리는 문학탐구반 동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동아리는 저의 전공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탐구해보고 활동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아리와 봉사는 자신의 공부 시간이 뺏기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게 하고, 전공적합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체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활동에는 진로와 자율 활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의 전공적합성을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낼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저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음악회에서 활동한 것 등을 녹여내었고, 3학년 때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전공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교육 모임 등을 만들어서 활동한 것들을 적기도 했습니다. 창체 활동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채우면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세특

저는 교과 세특은 크게 책 읽고 보고서 쓰기, 발표하기, 수행 평가한 과제를 심화적으로 탐구하기 등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국어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총, 균, 쇠', '페스트'와 같은 인문학 책에 관심이 생겼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사상과 같이 시사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처럼 교과 세특은 수행 평가한 과제나 그냥 책 읽기 정도로 끝내지 말고 더욱 심화적인 탐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과 세특은 국어를 예로 들자면, '교과서 속 문학 작품을 배우고 그 지역의 작가들을 더 탐구하고자 직접 생가를 견학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발표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더 탐구해 보고 싶어서 '내가 직접 탐구하고 체험해봤다'라는 더 나아가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과 수업 시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대한 발표를 많이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세특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소서

자소서는 1학년 때부터 써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1학년 때는 많이 한 활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작성해보면 2학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학생부를 써갈지, 나에게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분명! 최종적으로 중요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 1번 항목에서는 저의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문학과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활동을 많이 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관련 주제에 관한 활동을 꾸준히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부나 활동이 아니라 3학년 때까지 이어서 더욱 심화되는 탐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1번 항목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부 방법보다는, 내가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탐구까지 해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소서 2번 항목은 학생회 활동과 학급 활동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학생회 여부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도움을 줬던 부분을 부각하여 소통과 연대, 교사로서의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활동으로는 독서를 통한 진로 심화 탐구처럼 교사로서 학생들의 진로를 잘 찾아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각하여 작성했습니다. 2번 항목은 2~3개의 활동을 적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에서 내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쉬울 것 같지만 어려웠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그때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노트에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3번은 나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는 것입니다. 실제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자소서 4번은 자신의 인상 깊게 읽은 도서 3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교사로서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책 한 권, 저의 인성을 드러내는 책 한 권, 국어와 관련된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서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독서에 그림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노하우 (부제:나만의 학생부성적 관리법)

내신 시험은 1,2학년 때 수능을 위한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3학년 때는 수능을 좀 더 수월하고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시험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은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자!'입니다. 저는 보통 밤 12시에서 7시까지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다 적으려고 노력하자!'입니다.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과서에 빠르게 적고, 쉬는 시간이나 야자 시간에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더욱 복습도 잘 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고, 그다음 날에는 전날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등 배운 내용을 누적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전체 다 보게 되고, 심적으로도 시험이 다가와도 부담되지 않고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교과서를 10번 정도 보고 내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거의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내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수능 성적 관리 노하우 (부제:나만의 수능 공부법)

연계공부에 관해서

EBS에서 나오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꼭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집을 다 잡고 갔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을 수능 문제에서 빨리 풀어야 높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나오는 소재가 수능과 연계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비문학인데, 이 또한 독서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감을 익혀나갔고, 소재 연계도 많이 되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정말 다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실히 문학은 많이 알수록 수능 시험을 푸는 데 자신감도 생기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게 되므로 꼭 문학은 다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학

수학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5번 정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 비슷한 문제를 보고, 정말 쉽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수능특강, 수능완성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영어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꼭!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신 공부, 그리고 따로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공부하면서 거의 지문을 외우다시피 보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15초 만에 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능 시험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영어는 기초가 있는 분이라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지문을 모두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탐구

탐구는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찾아보면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윤리 과목은 연계 지문에 나오는 사상가들의 사상이 연계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상가들의 이론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전반적인 과목별 공부에 관해서



국어

저는 비문학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 비문학에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했습니다. 경찰대 시험이나 육군사관학교 시험처럼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니 수능 시험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답을 찾아서 비문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화법과 작문은 위에서 언급한 연계 지문을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수능 국어는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수능이 다가올수록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수학

저는 한 과목당 5~6권을 풀어봤을 정도로 수학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수능 수학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정말 다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한 달 전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집을 사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수능 수학은 이렇게 꾸준히,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결국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영어는 노트를 잘 활용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뜻이 여러 가지인 단어, 실수할 수 있는 문법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서 보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아는 것과 문장을 잘 분석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술 분석을 아주 꼼꼼히 하였고, 특히 연계 지문 공부를 통해 실전 수능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점심을 먹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영어 지문을 풀지 않고 풀어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탐구

탐구는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회 문화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개념을 확실히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단어를 외우는 개념 정리가 아니라,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는 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3문제라도 시간을 들여서 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윤리 과목 문제는 자신의 착각과 생각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기술, 그리고 EBS 연계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분석하고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II.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부제: 내가 생각하는 어디가 활용법)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또한 '성적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서 더욱 안정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저는 입시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혼란스럽고 서툴렀는데, 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원서 접수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어서 실수하지 않고 입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2학년 초반까지 마땅한 진학 계획이 없던 채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해서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고등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진로 선정

진로에 관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진로 희망 사항이 일관된 것이 좋을 거야' 과연 이 말이 100%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죠. 진로가 일관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진로 선정의 전제 조건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는 진로 변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유 없는 진로의 일관성은 목적이 있는 진로 변경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유 없는 진로 변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진로가 일관되든 변경되든 중요한 것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매년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1학년 때는 '대체에너지 분야', 2학년 때는 '의료계열', 3학년 때는 '대기환경 분야'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세 분야죠. 특히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시기라 학교에서 진로희망 사항을 적어내라고 할 때 손톱만 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급하게 적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다 보니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의료계열 활동을, 3학년 때는 대기과학 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며 제 진로 선정에 대한 이유, 그리고 진로 변경에 대한 이유를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담고자 했습니다. 즉, 진로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의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활동 위주로 1년의 생기부를 채워 나가면 3학년 때의 진로와 다르더라도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상

수상은 성적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수상경력을 다양하게 쌓아 놓으면 대입 시에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나 면접 등에 연관 지어 답변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수학 및 과학 사고력 대회 등 교과 관련 대회 수상 경력은 실수로 인해 빠졌한 해당 학기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하고, 봉사상이나 모범상과 같은 표창장은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수상경력이 총 32개인데요, 이공계열의 진로 관련 대회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대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참여하면서 가능한 많은 수상경력을 쌓고자 했습니다. 생기부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제 학기당 1개씩만 기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때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과목과 관련된 수상을 생기부에 올리시면 빠듯한 성적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및 봉사

정규 동아리는 1학년 때 과학 R&E, 2학년 때는 도서부, 3학년 때는 수리융합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로 2학년 때 과학 R&E, 3학년 때 기상 동아리를 개설해 참여했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3년 내내 이공 계열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2학년 정규 동아리인 도서부에서 이를 보여주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자율 동아리를 통해 저의 '과학적 탐구심'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급하게 바뀐 제 진로 관련 활동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기상 동아리를 개설해 기상 자료 분석, 데이터 수집 등의 활동을 하며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관련 활동은 이후에 자소서에서 활용되기 좋은 부분이므로 진로와 연관 지어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의료 분야를 제외한 이공계열 학생들은 너무 애써 채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과 특성상 인성이 중요한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채겨야 합니다. 봉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2가지, '지속성'과 '양'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누적 시간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제작 활동을, 2학년 때는 재활센터 봉사활동을, 그리고 매년 헌혈, 겨울철 연탄배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교내 봉사 포함 205시간을 채웠습니다.



세특

생기부에서 다른 항목의 경우 글자 수 제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항목이 바로 교과 세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세특은 두 가지만 잡아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생과의 차별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적혀 있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특별함이 없다면 잘 작성된 세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3학년 한국사 세특에는 6월 민주 항쟁 관련 글쓰기를 한 활동에 대해 '...라는 점을 높이 평가함. 6월 민주 항쟁이 ...라는 점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고, 만약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역사적 상상을 통해 ...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됨.'과 같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 1학년 과학탐구실험 세특에는 태양광 발전 장치 고안 활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장치를 고안함'이라고 적어, 어떤 장치인지, 남들과 다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는지 등의 설명이 누락되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적을 수 있는 '창의적임, 훌륭함, 적극적임' 등의 단어 대신 자신만의 세특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세특에 자신이 한 활동을 기재할 때 단순히 '활동을 했음'이라고만 적는 것보다는 그 활동을 한 동기, 활동 내용, 느낀 점이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독서, 논문,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했음이 드러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제 3학년 화학2 세특에는 '○○도서를 읽고(독서) 대기오염원의 심각성과 온실기체 감축의 필요성을 깨달아(활동 동기) ○○주제로 ...통계자료와 기사(자료 활용)를 찾아본 후 SCR과 DPF의 작동 원리와 그 전망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함(활동 내용). ...할 필요성을 느끼고 ...를 강조함(느낀 점).'이라고 적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저만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자소서

1번은 학습 경험, 2번은 교내 활동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한 활동, 3번은 리더십 및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 서울대 4번의 경우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책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저는 1번에서 교과 시간에 수학 과학을 융복합적으로 학습했던 경험을 담았고, 2번에서는 1, 2학년 동아리 시간에 활동했던 연구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자소서 1, 2번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활동을 나열하는 식이 아닌, 활동 내용을 핵심만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소서 3번은 연탄 배달을 하면서 느꼈던 복지에 관한 생각을 담았고, 3학년 때 반장을 하며 발생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4번의 경우 책 3권에 대한 평가 및 생각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 인생관을 정리해준 철학 도서, 과학 연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 준 과학도서, 진로 관련 도서로 3권을 작성했습니다. 독서에 관한 내용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닌, 읽게 된 계기-책 내용 한문장 요약책에 대한 평가-느낀 점을 서술했습니다. 진로 관련 도서로만 3권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진로 관련 도서 외의 책을 한두 권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팁

① 수업에 충실하자.

저는 중1~고3까지 내신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교육이란 학원, 과외, 인강 등의 공교육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받아온 비결은 '수업에 충실한 자세'였습니다. 제가 3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습관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기'입니다. 결국 내신 문제는 교과 선생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하는 수업은 그 무엇보다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학, 과학의 경우 선생님들이 배부해 주시는 연습 문제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질 정도로 반복해서 풀어서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생각해보면 하루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등교 후부터 1교시 시작 전까지의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중식 및 석식 후 남은 시간 등을 모두 합치면 최소 2시간 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자투리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틈틈이 주어지는 수업 중 남은 시간, 자습 시간 등을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긴 시간이 됩니다. 자투리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일주일이면 15시간, 한 달이면 60시간, 한 학기가 4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480시간이 됩니다. 저는 매일 자투리 시간에 공부할 순 없었지만 가능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주로 이런 시간에는 개념 공부보다는 수학, 과학과 같은 손으로 쓰며 문제 풀이가 가능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③ 노트 필기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 말자 + 백지 공부법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노트 필기에 매달렸는데요. 습관처럼 하던 노트 필기를 안 하면 불안해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필기만 하고 그 이후로 다시 노트를 펼치지 않는 것을 자각한 이후로 과감하게 이 공부법을 버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공부법이 노트 필기인데요.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노트 필기의 본질을 자신이 분명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공부 방법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트 필기를 할 시간에 머릿속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노트 필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 계속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공부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노트 필기법을 버리고 찾은 새로운 공부법은 백지 공부법입니다. 시험 3주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해당 과목의 개념 및 세부 내용을 암기 혹은 학습하는 시기라면, 일주일 전부터 시험 직 전까지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백지 공부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목의 제목 혹은 주제만 종이에 적고 그것만 보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책을 펼치지 않고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내는 과정에서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다 적은 후 책과 대조하며 누락 혹은 잘못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법이었습니다.

3 수능 성적 관리

국어

국어는 크게 화작, 문법, 문학, 독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작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고득점이 가능한 영역으로, 수록보다는 기출을 통해 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문법은 기초가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시중에 문법만 따로 나와 있는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적어도 2번, 가능한 3번 이상 회독하며 익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며 실전 감을 익히길 바랍니다. 문법 선지만 보고도 문제가 풀릴 만큼 익혀야 독서 문제 풀이에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문학은 EBS 연계 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나오는 작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설의 경우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기출문제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시간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싶을 때 시간을 측정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정확성, 속도를 함께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국어는 시간이 부족한 대표적인 과목이죠. 하지만 시간에 쫓겨 대충 문제를 푸는 순간 정확성과 속도 모두 잃습니다.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풀이하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해요!

수학

수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문제에 대한 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2~3점 문제의 경우 익숙한 유형의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4점 문제는 뒤로 갈수록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이 변형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므로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당 몇 분 동안은 답지를 보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기준을 정해주세요. 수학도 암기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암기로 통하는 문제도 한정적입니다. 저는 N형 수학 가형 기출이라는 문제집을 활용했는데요. 수학1, 미적분, 확통 각각 매일 두 바둑씩 꾸준히 풀며 감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영어

영어는 연계 체감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익히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지문 난이도가 수록 영어에 비해 높고 연계되는 비중도 더 큼니다. 가능하다면 각각 3회독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닌 지문 내용을 씹고 뜯어야 합니다. 첫 문장을 읽고 지문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야 연계 지문을 몇 초 안에 빨리 풀고 비연계 지문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은 코앞인데 지문 파악을 다 못했을 경우, 한글 해석본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지문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단, 영어 지문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 직전에 이 방법을 써봤는데 두 문제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따로 기출로 공부하지 않아도 영어는 연계 교재의 지문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연계 지문 공부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구

저는 화학1과 지구과학2 시험을 봤습니다.

화학의 경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계 체감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수능 특강은 난이도 자체도 낮고 수능 유형의 문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익히는 용도로 연습 문제로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완성은 난이도만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화학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난이도 체감을 위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반복'입니다. 저는 5년 치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를 최소 10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문제 풀이에 대한 시각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는 지구과학1, 2 모두 공부해봤는데 1은 암기력이, 2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1은 어느 정도의 공식, 내용만 암기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 풀이가 가능하지만 2는 해당 개념의 원리와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공부를 하느라 지구과학2를 공부하지 않고 2주 정도 손 놓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공부를 안 했을 뿐인데 한 등급이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과학탐구 과목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4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저는 대학어디가를 두 가지 용도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산출입니다. 가장 유용한 용도 중 하나죠. 대학별, 학년별로 성적 산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자서 성적산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대학어디가를 활용하면 교과목명, 시수, 등급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빠르게 성적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과목에, 어떤 분야에 취약한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검색입니다. 고2에서 고3 넘어올 때쯤부터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대학과 학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로 검색하면 정보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대학어디가에 검색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학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 친구들도 수시 성적이 다 나왔을 무렵부터 대학어디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통해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